

기아車, 민간 충전사업자와 파트너십

# “전기차, 구매·충전 손쉽게!”

국내 전기차 인프라 확대 팔 건어 충전기 설치·운영 맞춤 컨설팅도

기아자동차가 국내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CPO)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전기차(EV) 인프라를 확대한다.

기아차는 최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스트라픽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홈충전사업, 에스트라픽은 법인 및 공용충전사업을 담당한다.

기아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기차 구매부터 충전에 이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개인 및 법인 고객의 충전기 설치, 운영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담 콜센터를 통한 상시 지원 체계 구축, 전용 멤버십 운영 등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아차 전국지점, 대리점, 서비스 협력사는 물론 주유소, 마트 등에 충전기



에스트라픽이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죽전점 일렉트로 하이퍼 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점을 확보, 국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올해 자사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공용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요금을 10% 할인 또는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에스트라픽이 운영하는 충전소에는 기아차 고객 전용충전기를 배정, 우선예약·결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에 앞장서는 것

은 물론 동반성장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달 23일 쏘울 부스터 EV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으며 이달 중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들이 손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이라며 “기아차는 향후에도 국내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LG전자 ‘울트라 기어’ 앞세워 독일 게이밍모니터 시장 공략

e스포츠팀 ‘프랑크푸르트’ 후원



LG전자가 후원하는 독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e스포츠팀 선수들이 LG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게이밍모니터 ‘LG 울트라 기어’를 앞세워 독일 게이밍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전자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이하 프랑크푸르트)의 e스포츠팀을 후원한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2년간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 및 훈련을 위한 게이밍모니터 등을 제공한다.

LG전자는 e스포츠 인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마케팅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가 약 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8% 성장한 규모다.

프랑크푸르트 e스포츠팀은 현재 ‘가상분데스리가’ 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가상분데스리가는 실제 축구경기가 아니라 축구게임인 ‘피파 19’를 통해 진행되는 e스포츠 대회다. LG전자는 대회에서 게이머들 유니폼 티셔츠 정중앙에 새겨진 LG 로고와 LG 울트라기어 브랜드 노출을 통해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게이밍모니터 브랜드 LG 울트라기어를 론칭한 이후 다양

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게이밍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LG 울트라기어의 대표 모델 ‘34GK950G(34인치)’를 최근 유럽, 북미 등에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화질과 빠른 처리속도로 최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21:9 화면비에 WQHD(3440×1440) 해상도를 구현해 사용자가 화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이 제품에 장착한 ‘나노 IPS’ 패널은 미세 분자를 이용해 부정확한 색을 정교하게 조정한다.

또한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G-싱크 기술을 탑재해 빠른 화면 전환도 부드럽게 처리해준다.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화면 수가 120장(120Hz)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10만대 팔린 ‘싼타페’ 드려요!”

현대차, 4월 말까지 고객감사 이벤트  
공기청정기·LED마스크 등 경품 다양

현대자동차가 싼타페의 SUV 최초 연간 10만대 판매 달성을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싼타페 10만대 돌파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싼타페 10만대 돌파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싼타페 2.0 디젤 모던(1명) ▲LG전자 18평형 공기청정기(50명) ▲LG전자 프라

엘 더마 LED 마스크(50명) ▲캔커피 기프티콘(10만명) 등 총 10만101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싼타페는 SUV 최초로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현대차는 싼타페를 향한 고객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4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 접속 ▲현대차 전시장 내 QR코드 검색 ▲카마스터 태블릿PC로 견적내기 ▲현대차 시승센터 시승차 체험 등 4가지 방법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싼타페 경품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5월 3일 발표되며, 그 외 경품 당첨자는 2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발표된다. /양성운 기자 ysw@

# 제주항공, 올해 상반기 300명 공개채용

신규 항공기·노선 확대 등 인원 확충  
모바일 메신저 ‘질의 채팅방’ 운영도

제주항공이 항공기 신규 도입과 노선 확대 등을 위해 300여명 규모의 2019년도 상반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채용 부문은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운송과 운항통제, 운항(일반), 인사, 교육, 구매, 재무기획, 영업, 마케팅, 대외협력, 안전보안 등이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객실승무원은 신입 130여 명을 채용한다.

특히 시장을 선점하고, 점유율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거점 다변화 전략에 맞춰 부산과 대구, 무안에서 근무할 승무원도 60여 명 선발한다.

안전운항체계를 높이기 위해 정비 인력도 70여명 채용하며 무안과 부산, 제주 지역의 특성화고 출신 인력채용도 계획하고 있다.

전 직종에서 외국어 우수자와 보훈대

상을 우대하며, 특히 객실승무원은 제주항공이 취향하는 국가(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언어특기자를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모든 부문의 신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하며 운항관리사와 정비사는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2차례의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자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접대상자들과 모바일 메신저에서 질의응답 채팅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2019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는 2월11일 오후 1시부터 2월22일 오후 6시까지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해 744명을 신규 채용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2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수여하는 2018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정연우 기자

#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 증설... 468억 투자

효성첨단소재는 468억원을 투자해 전북 전주공장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증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부지에 라인을 추가해 현재 연간 2000t에서 4000t 규모로 증설하는 작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증설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압축천연가스(CNG)차, 전

선 심재의 경량화에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효성측은 설명했다.

탄소섬유는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와 CNG 고압용기 제작에 사용된다.

효성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탱크 수요는 120배, CNG 고압용기 수요는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07년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어 이후 201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효성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내놨다.

또 2013년 5월부터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해 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제주항공이 2019년도 상반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제주항공